인도·파키스탄 최근 분쟁의 추이 및 전망

□ 최근 분쟁 격화로 전쟁 가능성 고조

-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문제 및 카슈미르 영토문제로 잦은 분쟁을 겪어 왔음.

- 지난해말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도 의사당 공격에 이어 이번달 14일에는 무장괴한 3명이 캬슈미르의 인도 군부대를 급습하여 군인과 여성, 어린이 등 30여명을 무차별 사살하면서 양국간 긴장관계가 고조됨.

- 무장괴한이 파키스탄인으로 밝혀진 후 인도는 즉각적인 보복공격과 함께 뉴델리주재 파키스탄 대사를 추방하였으며 캬슈미르 국경선을 따라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고 양국의 군대가 전방으로 재배치되는 등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※ *캬슈미르 분쟁이란?*

-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될 무렵 인도제국을 구성하던 작은 토호국인 카슈미르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이 유력하였으나 정작 결정권을 가진 카슈미르의 통치자 하리 싱 국왕은 힌두교도로 인도로의 편입을 전격 결정함.

- 이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1년여 동안 전쟁을 벌였으며, 1949년 유엔 중재하에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의 전선을 통제선으로 하여 인도측 자무 카슈미르와 파키스탄측 아자드 카슈미르로 나누어 짐. 양국은 1965년과 1971년 두 차례 더 전쟁을 겪었으며 지금까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분리 독립투쟁이 계속되고 있음.

□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입지 강화가 목적

- 최근의 사태는 파키스탄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파키스탄의 대아프간 공격협조로 가까워진 미-파키스탄간의 협력관계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- 양국간 전면전이 발발하면 미국은 전통적 우방인 인도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, 경제적 실리를 위해 친미정책을 펴온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집권기반이 취약해져 파키스탄내에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임.

□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

- **파키스탄 :** 인도의 공격에 대해 즉각 반격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, 이슬람 무장세력을 단속하고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.

- **인도 :** 23개의 군소 정당으로 구성된 집권 인도인민당(BJP)은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는 등 집권기반이 취약해 국내강경파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임.

  · 그러나 인도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과 핵선제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,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을 상대로 전면전을 전개할 경우 양국이 공멸할 가능성도 있어 전쟁보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한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**미국** : 파키스탄을 대테러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국간 전쟁이 발발하면 특정국가를 지원하기 어렵고,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외교적 해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.

-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(BJP)이 의석 과반수에 미달되어 있고 무샤라프 정권도 자국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대치중이라 양국 강경파들의 전쟁 불사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도, 파키스탄, 미국 등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.

책임연구원 손승호(☎3779-6672)
E-mail : aojai@koreaexim.go.kr